

꽃길은 없다... ‘장미대선’ 가시 돋친 실전

민주당·국민의당 ‘안 띄우기’·‘朴 사면 발언’ 신경전

홍준표 “유승민 가출 그만뒀어”... 유승민 “출마자격 없는 분”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각 당의 입도 거칠어지고 있다. 특히 한때 같은 배를 탔던 개혁세력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보수세력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간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우선,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민주당이 국민의당과 안 전 대표에 대한 공격을 본격화한 모양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국민의당 띄우기가 사실과 달라 좀 지나치다고 본다”며 “도를 넘은 국민의당 띄우기가 결국은 민주당의 정권교체를 막아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언론이 띄우는 게 아니라 민심이 띄우는 것을 작각하는

것”이라며 “스스로 자신들의 해가 저가하는 것을 인지했다고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박 전 대표는 2일에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서울·인천 지역 순회경선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호떡집 불난 것처럼 놀라서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대세론 잔치판을 벌이던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은 왜 녹색바람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패니, 맨붕 상태”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측과 안 전 대표 측은 이날 안 전 대표의 최근 ‘사면 발언’을 두고도 정면 충돌했다.

앞서 안 전 대표는 지난달 31일 “대통령의 사면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사면)위원회를 만들어 국민 뜻을 모으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사면 검토 여지가 있는냐”는 질문에 “국민 요구가 있으면 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이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같은 날 밤부터 문 전 대표 측이 “진의를 의심된다”고 비판하자 안 전 대표 측은 “문 전 대표 측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에서 문화예술인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에게 “(박 전 대통령) 구속되자마자 사면이니 용서나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이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안 전 대표 측은 “문 전 대표 측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날조된 프레임을 덧씌우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손금주 최고위원은 성명을 내고 “수구패 권세력은 극과 극이 통하나, 문 전 대표를 보면 과거 독재정권의 모습이 연상된다”며 “문 전 대표에 대해 ‘도로 박근혜’, ‘문근혜’라는 말이 회자하는 것도 이 때문인가”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vs 유승민=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이날 거친 표현을 써가면 상대를 겨냥했다.

홍 후보는 이날 유 후보를 “음석반이 어린이”에 비유했다. ‘가출(탈당)한 사유가

없어졌으니 하루빨리 돌아와야 하는데, 이런저런 조건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그는 바른정당을 ‘작은 집’으로 표현하며 자신이 ‘큰 집’의 어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후보는 유 후보의 ‘완주’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했다. “대선은 결국 한국당과 민주당의 구도”라고 말한 것이다.

그는 유 후보에 대해서는 “유 후보가 50억원(선거보조금)을 받고 안 한다고 하고 합당하면 정치적 사망이다. 영원한 ‘제2의 이정희’가 된다”고 비판했다. 2012년 대선에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선거보조금을 받고 난 뒤 사퇴한 것을 빗댄 것이다. 이에 유 후보는 홍 후보가 그런 말 할 자격조차 없다고 쏘아붙였다. 한국당 경선 때부터 제기한 ‘피고인 홍준표’ 논리다. 그는 전날 “그쪽 대선후보는 출마자격조차 없는 분이 아니냐”며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대법원 상고심이 남아있는 점을 꼬집었다.

유 후보는 또한 홍 후보가 제기한 중도 사퇴론에 대해서 “생각조차 못 해봤다.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지경기자 jkpark@

김종인 5일 출마 선언할 듯

정운찬·홍석현 3자 회동 연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오는 5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끌고 있다.

김 전 대표와 동반 탈당한 최명길 의원 등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3일 민주당, 4일 국민의당 대선 후보 확정이 예정됨에 따라 오는 5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전 대표는 국민의당 대선 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 ‘합리적’이라며 긍정적 메시지를 던진 바 있어 막판, 비문(비문재인) 세력을 결집하는데 역할을 하지 않느냐는 관측을 받고 있다. 하지만, 2일로 예정된 정운찬 동반성

장연구소 이사장, 홍석현 중앙일보·JTBC 전 회장과 회동이 순연되면서 김 전 대표의 대선 출마가 늦춰지지 않는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 이사장 측 관계자는 이날 오전 8시쯤 ‘김종인, 정운찬, 홍석현 3인 공개회동’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보내왔으나 오전 11시쯤 “내부 사정으로 잠정 연기됐다”고 공지했다.

당초 3인은 이날 만나 통합정부 추진과 19대 대선 통합후보 선출 등을 논의한 후 ‘공동정부위원회 발족’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오전 실무협의를 진행하던 중 합의문 일부 문항에서 이견을 보인 뒤 회동 연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임동욱기자 tuim@

바른정당, 광주·전남 조직 확대

9곳 당협조직위원장 선정

바른정당이 유승민 의원의 대선 후보 확정과 함께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조직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바른정당은 2일 국회의원 광주·전남 선거구 18곳 중 9곳의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을 지난 31일 선정했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1·2차에 걸쳐 관심 있는 당원을 대상으로 공모해 서류·면접 등 적격 심사를 거쳐 9개 지역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을 임명했다.

각 지역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은 광

주 지역 ▲서구를 허현식 광주시당위원장 ▲동남을 안영신씨 ▲광산갑 박영용씨가 선정됐다.

전남은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이금재 전남도당 위원장이 ▲여수를 심정우씨 ▲순천시 이평재씨 ▲나주·화순·나현우씨 ▲해남·완도·진도 홍종기씨 ▲영암·무안·신안 주영순씨가 임명됐다.

바른정당 광주·전남 시도당은 나머지 선거구에도 조만간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을 선임하기로 했다.

한편 바른정당은 전국 159개 지역의 조직위원장을 확정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홍준표 “열심히 뛰겠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맨 왼쪽)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된 뒤 김진태, 김관용, 이인제 후보와 손을 들어 답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본선 직행 vs 과반 저지... 민주 오늘 ‘운명의 날’

전국 순회 마지막 수도권 경선... 文·安·李 득표전 사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은 마지막 순회경선인 수도권 투표(3일)를 하루 앞둔 2일 마지막 득표전에 정치 생명의 사활을 걸었다.

문 전 대표는 수도권까지 누적 득표율 과반이라는 목표를 달성, 결선투표 없이 3일 승부를 결정짓겠다는 각오로 부지런히 움직였다. 안희정 충남지사나 이재명 성남 시장은 더 이상 불러날 곳이 없는 ‘배수진’을 치고 문 전 대표 과반 저지를 위한 득표전을 이어갔다.

우선 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문화예술인들과 간담회에서 문화예술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준비된 후보’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이 자리에서는 문화·예술인 30여 명이 문 전 대표 지지를 선언했다.

안지사와 이시장은 호신의 힘을 다했다. 누적득표율 2위를 달리는 안 지사는 이날 서울 성북구협화장기 배드민턴 대회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모터쇼에 참석하는 등 분주한 일정을 소화했다.

모터쇼 참석 전에는 국회에 와서 기자들

과 간담회를 열고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진인사대천명”이라고 각오를 드러냈다.

안 지사는 “선과 악, 정의와 불의의 진영싸움을 뛰어넘어 한다는 저의 소신과 신념, 새로운 리더십에 많은 국민이 충분히 주목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아 “대세론과 촛불광장의 성난 민심 앞에 대화와 타협을 얘기한 저의 도전도 참 용기있는 도전이었다”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해주신 ‘안희정이 있어 모든 분란과 갈등이 다 치유되고 통합으로 갈 수 있다’는 정언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

다”면서 마지막 지지를 호소했다.

이 시장은 문 전 대표, 안 지사와 달리 이날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최후 결전을 준비했다. 이 시장 측은 “마지막 역전 출판을 위한 준비로 바빠 달라”라고 설명했다.

대신 이 시장은 ‘국민이 곧 이재명입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기득권 세력과의 대연정, 적폐세력과의 대연정에 대한 국민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후보들과 달리, 저 이재명은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대리에 나가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지지를 당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재외선거인 29만7919명 ‘역대 최다’

18대 대선보다 34% 늘어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 등 신고·신청자 수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밝혔다.

재외선거인 29만7919명, 재외선거인 5만3420명 등 총 29만7919명의 재외선거인 등이 신고·신청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외부재자는 유학생·해외과거자 등, 재외선거인은 외국영주권자가 대상이다.

이는 전체 추정 재외선거권자(약 197만 명)의 15.1% 수준으로, 지난 18대 대

선(22만2천389명) 때보다 33.9% 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제20대 국회의원선거(15만4천217명)에 비하면 93.1% 포인트 증가했다.

공관별로는 일본대사관이 1만6060명으로 가장 많고, 뉴욕총영사관(1만4194명),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1만3697명) 등이 그 다음을 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 6만9495명, 중국 4만3977명, 일본 3만8625명의 순이었다.

재외선거인 등의 명부는 오는 4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작성한다. 투표는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간에 전 세계 175개 공관마다 설치한 재외투표소와 25개의 추가투표소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이종형기자 golee@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대부는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법원경매, 질권대출&부동산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 기업입니다.

NPL관련업무를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 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NPL(근저당권)투자는?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상가, 공장, 토지, 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 광주시 광산구 남산동 733-1, 733-6
 - 토지 : 총 1,370㎡
 - 용도 : 주거지 1층 건물 철거조건
 - 6억5천만원

- 전남 나주시 다시면 월대리 587-27외 3필지
 - 토지 : 총 5,524㎡
 - 용도 : 주거지 2층
 - 8억3천만원

- 전남 해남군 산이면 초소리 579-49외 3필지
 - 토지 : 총 866㎡
 - 용도 : 나대지
 - 2억5천만원 (교환가능)

경매, NPL채권 배우면서 투자 가능하신 분 3명 모집 (2017년 3월 6일 ~ 2017년 3월 30일 까지)

NPL 채권 매입 전문

-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 (후 순위 추가대출 가능)
 -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채권 매입
- 경매 취하자금 대출

대출금리 : 연 27.9% 이내 (추가비용 없음)

- 과도한 빛, 고통의 시작입니다 -

등록번호 2017금감원-0790